

땅 파헤쳐지고 시설물 널브러져 '안전 위협'

사업 시작 한 달 넘었는데 진척없이 '감감 무소식' 복구청 "시공구간 조율 통해 시민불편 최소화 노력"



자전거도로 공사 '허송세월'

광주역 인근에 자전거도로 공사가 한창이지만 진척없이 허송세월만 하고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를 시작한 지 1개월이 넘었지만 도로 곳곳이 파헤쳐진 채 방치되는가 하면 기존하수구마저 그대로 노출돼 안전사고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오는 11월 공사가 마무리되고, 주변 정비도 그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서 당분

간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오후 7시께 광주역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를 탑승하기 위한 시민들과 학생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 움푹 패이고 자갈밭으로 변한 인도를 아슬아슬하게 횡단하고 있었다.

홀로 우두커니 서있는 버스정류장도 곧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주변 도로를 파헤쳐놔 시민들이 정류장 인근을 멀찌감치 떠나 인도와 도로 경계선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또 주변에 있어야 할 쓰레기통이나 신문보관함 등은 공사현장에 널브러져 있었다.

지난 8월 27일 공사가 시작됐음에도 공사는 진척없이 움푹 패인 도로 위에 신문 배달함, 쓰레기통 등 구조



공사 계획 차질로 광주역 인근 자전거도로 공사가 한 달 이상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물들이 넘어져 있는 등 공사구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아직 도로포장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이 모씨(26·여)는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단될 수도 있는데 왜 공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장 인근이나 주유소 등부터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구청 관계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나누는 경계석의 수량에 차질이 있어 초반 공사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시공사와 잘 조율해서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버스정류장, 마트, 주유소 등 인근을 먼저 마무리하는 방안을 마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인 자전거도로 사업은 지난 7월 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8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에 광주역- 챔피언스필드(3km) 구간이 선정되면서 시비 2억원·특별교부세 3억원 등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8월 27일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11월 23일이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0~24	흥산도	18~22
담양	10~24	구례	9~25
화순	9~24	곡성	8~24
영광	11~24	완도	14~24
함평	11~25	강진	10~25
무안	12~24	장흥	9~25
영암	9~24	해남	9~24
진도	12~23	고흥	11~24
신안	13~24	보성	9~23

일출 06:28 일몰 18:14
월출 --:-- 월몰 14:14

목포	만조 07:44 20:47	여수	만조 02:21 15:54
	간조 00:47 12:58		간조 08:47 22:30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1억대 식자재 빼돌린 마트 직원 탈미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식자재를 빼돌려 다른 마트에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식자재를 배송하는 것처럼 속여 다른 마트에 팔아넘긴 혐의(상습절도)로 나 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나씨가 훔친 물건을 헐값에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강 모씨(39) 등 다른 식자재 마트 사장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씨는 자신이 일하던 광산구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209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훔쳐 판 혐의다.

조사결과 나씨는 다른 마트 사장들이 필요한 물품목록을 전달하면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해당 물건을 훔쳐 나와 절반가격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이나라 기자

백미러 안 접힌 차량만 골라 털어 경찰, 고등학생 2명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새벽시간대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털어(특수절도)로 윤 모군(16) 등 고등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군 등은 지난달 2일 새벽 0시 35분께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현금 10만원과 500달러를 훔치는 등 지난월부터 최근까지 주차된 차량 2대에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종찬 기자

법원, 전두환 '관할이전' 신청 기각...출석 요구

"공평 유지 어려운 객관적 상황 존재하지 않아"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87)의 재판 관할권이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일 전씨 측 관할이전 신청 심리를 열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 측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호 제2호에서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전씨 측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1일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전씨 측은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여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전을 요구했다.

그동안 전씨 측은 현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송신청)을 피력해 왔다.

관할이전에 대한 법원결정이 나오면 따라 재판부(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고 전씨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고령으로 광주까

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증거 및 서류 검토 시간이 필요하며 두 차례 연기신청을 해 당초 지난 5월 28일 예정된 첫 재판이 지난 8월 27일 열렸다.

그러나 첫 재판에 전씨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나오지 않아 또다시 연기됐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4월 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나라 기자



미용예술경기대회 2일 오전 광주여대에서 열린 '제30회 광주시장배 미용예술경기대회&전국뷰티페스티벌' 학생부 전신관리부문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